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venience in Finding Books According to Classifications: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s in Public Libraries and Bookstores

오경은(Kyong-Eun Oh)*

김기영(Gi-Yeong Kim)**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행태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두 기관의 분류방식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도서탐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서점의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분류방식의 어떤 특징이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지를 알아보아,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편리한 분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탐색의 특징과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조사·분석한 후 설문지법을 통해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과 탐색영역, 탐색기준을 알아보고,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탐색에 더 편리한 분류방식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은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that facilitate users' finding books by analyzing classifications in public library and bookstore.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ers' needs and information behaviors are similar in both public library and bookst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recommend classifying public library collections the way a bookstore does, but to figure out what makes the users' book finding more convenient b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s. To carry out the research, users' book finding in public library and classifications of public library and bookstore are analyzed. Then,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users' book finding behaviors, degree of convenience in finding books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cations and the causes of the convenie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bookstore's classification was more convenient for the users in finding books.

키워드: 분류방식, 도서탐색, 공공도서관, 대형서점, 탐색행태, 탐색용이성
classification, finding books, public library, bookstore, book finding behaviors

* Schoo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Library Studies, Rutgers University
(hesperus.oh@gmail.com)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gkim@yonsei.ac.kr)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일
■ 情報管理學會誌, 25(4): 25-42, 2008. [DOI:10.3743/KOSIM.2008.25.4.025]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특정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공공도서관을 통해 도서를 탐색하고 얻을 수 있다. 한편, 1963년 종로서적을 시작으로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도서를 탐색하고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인 대형서점이 등장해 오늘날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조경환 1993). 공공도서관은 비영리 기관이며 대형서점은 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두 기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Woodward 2005), 다양한 요구와 목적, 특성을 가진 대중이 이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본 연구가 1990년대 후반 미국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Agosto 2006). 이러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용자의 도서탐색을 편리하게 해주고자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서의 분류이다.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과 방식에 맞도록 도서를 분류하여, 탐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공공도서관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도서를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방식이 공공도서관에서 사람들의 도서탐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ynch and Mulero 2007; Raymond 1998; Sapiie 1995; Sawbridge and Favret 1982; Sykes 1982). 그 이유 중 일부는 십진분류법의 기반이 되는 듀이십진분류법이 공공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류법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도서관은 관중 별로 도서관의 목적, 서비스대상, 장서, 이용자의 정보이용목적 및 이용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관중에 적합한 분류방식이 다른 관중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십진분류법은 총류와 문학을 제외하고는 학문분야를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이용자의 주된 도서 이용목적이 교수와 학습, 연구에 있는 대학도서관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이용목적이 이용자의 연령과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공공도서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전문·학술자료보다는 문화·교양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장서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곽철완 2005). 또한, '학문분야'라는 한 가지 측면으로 도서에 접근하게 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도서에 접근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탐색행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Baker and Shepherd 1988), 열거형 분류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나, 새롭게 등장한 영역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고(Lynch and Mulero 2007), 범주를 표현하는 용어 또한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형서점은 자체적으로 만든 분류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류방식은 학문분야를 포함하여 도서 이용대상, 도서의 유형, 도서의 주제, 도서의 언어, 도서의 이용목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항목의 수와 명칭이 고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의 분석을 통해 어떤 특징이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지를 알아보아,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편리한 분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탐색의 특징과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조사·분석한 후 설문지법을 통해 이용자의 도서탐색 목적과 탐색영역, 탐색기준을 알아보고,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탐색에 더 편리한 분류방식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특정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대형서점은 도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 중 공공도서관에 상응하는 양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477만 권의 장서를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1만권에서 40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비교 가능한 서점으로, 200만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한 두 개의 분점을 제외하고는 적게는 5만권에서 많게는 50만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 영풍문고와 교보문고, 1만권에서 20만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 반디앤루니스를 본 연구의 대형서점의 사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서탐색행태의 의미는, 도서를 탐색하는 방법과 과정, 탐색목적, 탐색영역, 탐색에 이용하는 기준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정보요구와 도서탐색방법은 유사한가?

둘째, 문헌의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 문헌분류

방식에 따라 도서탐색용이성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도서탐색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다섯째, 문헌분류 외에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탐색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이용자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과, 교육적 요구와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대학도서관, 특정 분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서로 다른 연령층과 직업, 교육적·문화적·경제적 배경, 흥미, 요구를 가진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는데(Leckie and Given 2005; Evans and Saponaro 2005; Boter and Wedel 2005), 이렇게 다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관중은 공공도서관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Chernik 1992).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전문·학술자료보다 어린이 도서와 문화·교양 도서 도서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도서들을 많이 찾는다(곽철완 2005).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학술적 목적 외에도 여가와 즐거움, 생활이나 직업에 필요한 정보탐색,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된 정보탐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서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Vavrek 2000;

Leckie and Given 2005; Steffen and Lance 2002).

즉,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중 도서관과 구분되는 목적, 서비스 대상, 장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탐색행태에 적합한 분류방식은 다른 관중의 분류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문헌분류

2.2.1 공공도서관의 문헌분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은 대표적인 열거형 분류체계로, 도서를 10개의 광범위한 학문분야로 구분한 후, 이를 계속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한국십진분류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분류기호의 계층구조로 인해 기호 간의 상하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풍부한 조기성으로 분류표의 이해가 용이하고, 순수기호법을 채택하여 분류표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8; 윤희운 2005; 오동근, 배영활, 여지숙 2002;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8). 그러나 모든 개념이 상하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며(김태수 2000), 실제 이용자는 정보를 탐색할 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영역으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Katz 2002), 분류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이용자에게 일련의 숫자는 오히려 혼란을 더할 수 있다(Shore 2007).

한국십진분류법은 또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윤희운 2005; 오동

근, 배영활, 여지숙 2002), 한 공공도서관의 분류법에 익숙한 이용자가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쉽게 도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것은 분류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십진분류법은 무한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한국도서관협회 1998; 오동근, 배영활, 여지숙 2002), 동시에 그로 인해 새로운 주제를 적절한 위치에 넣기가 어려우며, 이용자의 관심영역이나 새롭게 등장한 영역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Lynch and Mulero 2007; 정연경 2001). 또한 상세한 분류를 할 경우 분류기호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으며(오동근, 배영활, 여지숙 2002), 기호가 길어지면 기억과 식별이 불편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8).

한국십진분류법은 또한 주류에 있어 학문영역의 체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문영역체계에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분류 이해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각기 서로 다른 배경과 흥미, 목적, 방법으로 장서에 접근하며(Boter and Wedel 2005),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도서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aker and Shepherd 1988), 단일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여 한 가지 측면으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분류방식은 이용자의 탐색행태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총류와 문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영역을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는 것도 학문적 목적 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도서를 탐색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는 탐색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Leckie and Given 2005; Leckie and

Hopkins 2002; Smith 1999).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십진분류법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되기에는 이용자의 도서탐색방법 및 과정, 탐색 시 이용기준, 탐색영역, 탐색목적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대형서점의 문헌분류

대형서점은 고객층의 구성, 유통물량의 과다, 매장의 실정에 따라 각 매장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방식으로 도서를 분류하고 있다(한국서점편람 2006). 따라서 매장에 따라 분류항목의 명칭이나 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과 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형서점은 다양한 기준을 혼합하여 도서를 분류하고 있다. 즉,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같은 학문영역뿐 아니라, 어린이나 여성을 위한 도서와 같은 도서이용대상, 수험서나 취미와 같은 도서의 이용목적, 외국어 서적과 같은 도서의 언어, 만화나 잡지, 사전과 같은 도서의 유형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서점의 분류는 대상을 특정한 구분원리에 따라 몇 개의 구성요소로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서(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8), 일종의 패킷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패킷 분류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패킷을 조합하여 도서의 특성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 혹은 두 개의 패킷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거순서나, 배열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패킷기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의 분류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서점편람(2006)은, 서점의 분류는 이용자의 편의를 분류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용자가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류가 서점의 첫째 과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서점 분류방식은 분류항목의 수나 명칭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념이나 특성의 조합이 자유로워 새로운 영역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도서의 이용빈도나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분류항목에 빠르고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정연경 2001).

또한 도서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도서에 복수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복수의 기준으로 탐색하는 이용자의 도서탐색행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Baker and Shepherd 1988),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Leckie and Given 2005; Leckie and Hopkins 2002; 정연경 2001),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탐색하는(Smith 1999) 이용자의 탐색행태 또한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분류체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윤희운 2005),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연경 2001).

2.2.3 관련연구

Raymond(1998)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장·단점을 비교한 글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은 기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서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Coffman(1998) 역시 공공도서관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형

서점의 경영 방식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Woodward(2005)는 대형서점이 이용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도서관이 대형서점과 같이 이용자에게 초점을 둔다면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Siess(2003)는 분류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서관의 자료 정리가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Shimpock Vieweg(1992) 역시 이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장서를 배열할 것을 언급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과 그 원인을 분석해 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지만,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을 비교해본 연구나, 대형서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4 관련사례

실제로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사용한 공공도서관의 사례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Maricopa County Library의 분관인 Perry Branch Library가 있다. 2007년 6월,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대형서점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형서점의 방식으로 도서를 분류한 이후로 주변의 다른 분관들의 하루 대출 자료 수보다 100-150개가 더 많은 대출 자료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Lavalle 2007).

3.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 연구

3.1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이용자의 도서탐색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정보요구와 도서탐색방법이 유사한지와, 분류가 도서탐색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아 본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법을 이용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면접대상은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을 모두 이용해 본 네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은 2007년 12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되었다. 면접시간은 한 대상자 당 약 20분 가량 소요되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 평소 주로 탐색하는 도서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기관 모두에서 이용자들은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탐색했으며, 탐색하는 도서는 상당부분 유사하였다.

구체적인 도서탐색방법과 탐색과정을 묻는 질문에 면접 대상자들은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모두에서 관심 있는 도서를 둘러보거나, 특정도서를 찾아본다고 답하여, 두 기관 모두에서 도서탐색 시 검색과 브라우징의 방법을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탐색과정에 있어 공공도서관에서는 서가를 둘러보거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사서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를 탐색한다고 답했으며, 대형서점에서 역시 서가를 둘러보거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점원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 도서를 탐색한다고 답해 공공도서관

과 대형서점에서 도서탐색방법과 과정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각각에서 도서를 탐색할 때, 탐색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요소와, 탐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질문했다. 먼저 탐색을 편리하게 하는 요소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청구기호를 알려주는 검색시스템과, 특정도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청구기호였고, 대형서점의 경우, 서점의 공간구성, 도서의 분류방식, 검색시스템, 점원, 안내판이었다. 한편, 탐색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간구성, 분류방식, 안내판, 청구기호 그리고 검색시스템이었으며, 대형서점의 경우, 도서의 서가 위치만을 알려주는 검색시스템이었다. 즉, 분류방식이 공공도서관에서는 탐색의 장애요인 중 하나인 반면 대형서점에서는 탐색을 편리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도서탐색행태와, 어느 곳의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더 편리한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통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3월 22일에서 4월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을 통해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을 모두 이용해 본 일반인 360명에게 배포되었다.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탐색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공공도서관의 주류 10개와 강목 95개, 대형서점의 대분류 10개와 중분류 95개를 제시한 후, 주로 도서를 탐색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탐색영역을 알아봄과 동시에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도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7개 문항을 통해 분류표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를 알아보았다. 7개 문항은 각각 ①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②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③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④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 ⑤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⑥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⑦ 분류항목명의 이해도였다.

탐색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서의 탐색목적, 탐색영역, 탐색에 편리한 분류기준을 질문하였고,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명목척도와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도서를 찾기에 더 편리한 곳과 편리한 정도를 표시한 후, 개방형 질문으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340개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분석 설문지는 총 313개였다. 수거된 설문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척도를 사용한 문항인 탐색영역과, 탐색목적, 탐색 시 이용하는 기준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중 탐색이 더 편리한 곳 역시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최종학력에 따라 실제 도서탐색용이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등간척도인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들은, 먼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7개 항목들과 실제 탐색용이도에 있어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를 측정하는 7개 항목과 실제 탐색용이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7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를 알아보기 위한 7개 항목 간에 내재된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항목을 몇 가지 대표 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를 알아보기 위한 7개 항목이 도서관탐색용이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수
연령대	10대	24
	20대	108
	30대	58
	40대	47
	50대	59
	60대 이상	17
성별	남자	94
	여자	219
직업	학생	121
	교육/연구 관련	39
	회사/공무원	63
	전문직	28
	주부	52
	기타	6
	무직	4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14
	중학교 졸업	44
	고등학교 졸업	156
	대학교 졸업	9
	대학원 졸업	40
계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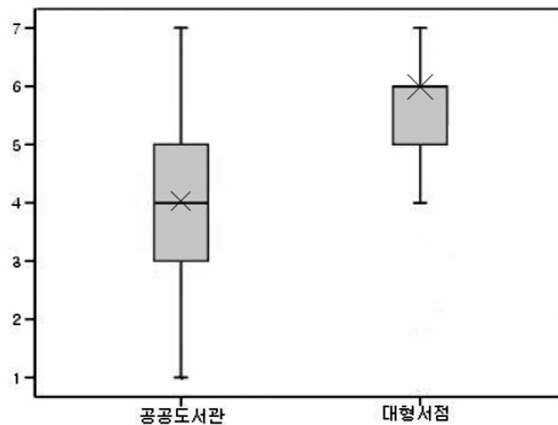
3.2.1 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

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을 명목척도를 통해 질문했을 때, 52명의 응답자(16.6%)가 공공도서관이 편리하다고 답했고, 261명의 응답자(83.%)가 대형서점이 더 편리하다고 답했다. 즉,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이 도서탐색에 더 편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간에 $t(313) = 14.82, p < .001$ 로 유의도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대형서점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M = 5.55; SD = 1.15$)가 공공도서관($M = 4.06; SD = 1.36$)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탐색용이도는 <그림 1>과 같다.

한편, <그림 1>을 보면 공공도서관 분류방식은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용자와 매우 불

편하다고 느끼는 이용자가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V = 1.86$), 이것은 학문영역의 분류방식이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공공도서관의 분류가 매우 편리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최종학력에 따라 분류방식에 따른 탐색용이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8%가,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3%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25%가 대형서점보다 공공도서관의 분류방식이 편하다고 답해 학문영역의 분류방식에 익숙한 이용자일수록 공공도서관의 분류방식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형서점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비해 탐색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용자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용자 간에 차이가 적었으며($V = 1.31$), 대부분의 이용자가 탐색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분류방식에 따른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도서탐색용이도

3.2.2 도서탐색용이성의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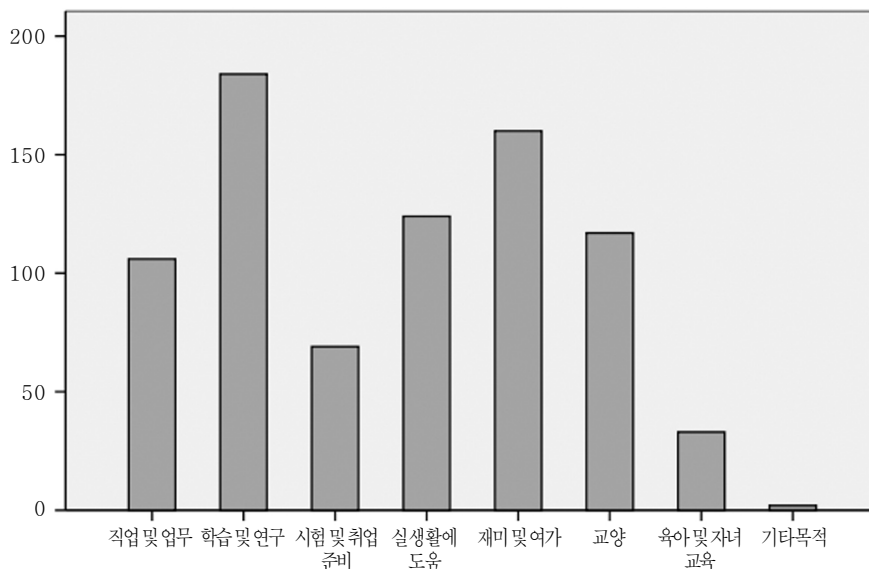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도서를 탐색하기에 더 편리한 원인은 크게 이용자의 도서탐색행태와 분류표에서의 도서탐색용이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용자의 도서탐색행태는, 이용자의 주된 도서탐색목적, 탐색영역, 탐색기준을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질문한 후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먼저,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은 학습 및 연구를 위한 것(23.1%) 외에도 재미 및 여가를 위해서(20.1%),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15.6%), 교양을 위해서(14.7%), 직업 및 업무를 위해서(13.3%) 등으로 고르고 다양했다.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은 <그림 2>와 같다.

이용자의 주된 탐색영역 역시 학문과 관련된 영역 외에도 취미,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문영역 외의 다

양한 영역으로 도서를 분류한 대형서점의 분류가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과 탐색영역을 더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은 이용자가 자주 탐색하는 영역에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 즉, 이용자가 주로 탐색하는 영역이라고 선택한 항목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예술·취미' 항목은 대형서점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분류항목인 대분류에 속하는 반면, 한국십진분류법에서는 '취미'의 경우, 네 번째 수준인 세목에 해당했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만화·잡지' 항목은 대형서점에서는 대분류 항목인 반면, 한국십진분류법에서 '만화' 항목은 세목에 해당했다. 즉, 대형서점의 분류가 이용자의 탐색빈도가 높은 영역으로의 접근이 더 쉬우며, 이것이 대형서점에서 도서탐색을 더 편리하게 해 주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이용자의 도서탐색목적

탐색에 편리한 분류기준의 경우, 도서의 이용대상(25.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도서의 유형(19.0%), 도서의 장르(18.0%), 도서의 주제(16.4%), 도서의 이용목적(15.5%) 순으로 이용자는 도서의 주제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탐색에 편리한 분류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문영역을 기준으로 한 공공도서관 분류방식의 경우, 학문주제영역에 따라 도서를 탐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는 설문지에 제시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실제 분류표를 바탕으로 답하도록 했으며, 앞서 밝힌 7개 항목을 통해 알아보았다. 각 항목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7개 항목 모두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형서점이 공공도

서관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가 더 높는데, 이러한 결과는 설문지의 질문 중 탐색이 더 편리한 곳에 대한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한 응답자는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이 '내가 찾아보는 분야를 찾기가 쉽다'라고 한 반면, 또 다른 응답자는 '공공도서관의 분류방식은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대형서점의 분류가 공공도서관보다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항목인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역시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한 이용자는 설문 응답을 통해

<표 2>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 분류표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 분석(t-검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공공도서관	313	4.13	1.505	8.19*
	대형서점	313	4.86	1.393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공공도서관	313	4.33	1.516	6.85*
	대형서점	313	5.01	1.407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공공도서관	313	4.18	1.443	6.70*
	대형서점	313	4.81	1.334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있는 정도	공공도서관	313	4.10	1.525	8.79*
	대형서점	313	4.95	1.323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공공도서관	313	4.17	1.512	6.45*
	대형서점	313	4.86	1.445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공공도서관	313	4.06	1.486	8.90*
	대형서점	313	4.94	1.438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공공도서관	313	4.17	1.492	8.42*
	대형서점	313	4.97	1.431	

* p < .001

‘대형서점은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책을 찾기 쉽게 분류해 놓아서 책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답했다. 네 번째 항목인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도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설문지의 응답에서 한 이용자는 대형서점이 ‘비슷한 분야의 책이 한 곳에 모여있어 찾기 쉽다’라고 답했다.

다섯 번째 항목인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역시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답한 응답 중에는 대형서점의 분류표의 체계나 분류방법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섯 번째 항목인 ‘분류항목명의 이해도’에서도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항목인 ‘분류항목명의 친숙도’도 대형서점이 공공도서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설문에서 한 응답자는 대형서점의 경우 ‘귀에 낫익은 단어의 주제어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이라고 답한 반면, 한 응답자는 ‘공공도서관의 분류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용어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성 측정을 위한 7개 항목이 실제 이용자의 도서탐색용이도를 잘 나타내주는 지와, 이들 7개 항목

중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이 7개 항목과 실제 도서탐색용이도를 표시한 항목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7개 항목과 도서탐색용이도 간에 모두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두 0.4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이 항목들과 실제 도서탐색용이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항목들이 실제 이용자의 도서탐색용이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536),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518),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517)였다.

또한 7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0.4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 분류항목명의 친숙도’(.828),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770) 쌍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그 중 공공도서관 분류표에서의 도서탐색용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7개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 쉬운정도 분류항목명의 이해도’(.757)

<표 3> 분류표 탐색용이성 측정항목과 실제 탐색용이도 간의 상관관계

	실제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있는 정도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실제도서탐색용이도	.536*	.518*	.486*	.517*	.443*	.479*	.469*

각 항목의 수치는 피어슨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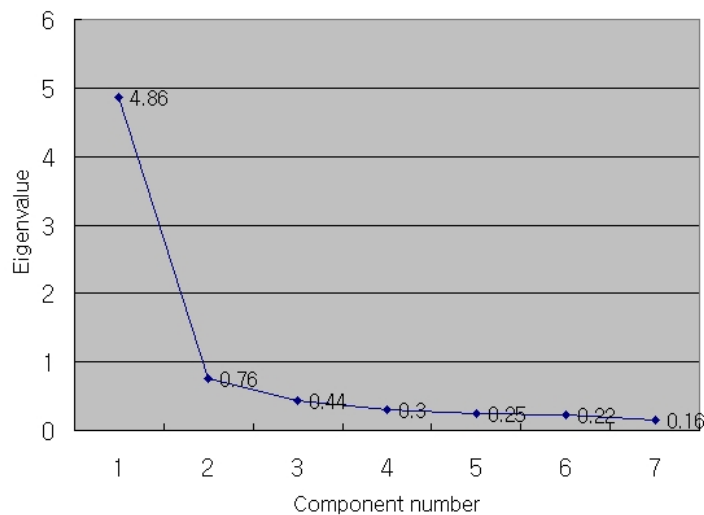
* $p < .001$

항목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공공도서관 분류에 있어서 이용자가 도서관의 분류방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류항목명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분석에 근거하여 7개 측정 항목 간에 내재된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항목을 몇 가지 대표 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보다 명확한 요인의 추출과 해석을 위해 요인들을 직각 회전하였으며(임종원, 박형진, 강명수 2001), 직각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하는 요인 수를 정함에 있어 스크리 테스트를 통해, 아이겐 값이 급격한 하락에서 완만한 하락으로 바뀌어지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를 정하는 방법(Green and Salkind 2007)을 이용했으며, 이렇게 추출된 요인은 두 개였다. 각 요인의 명칭은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의 특성에 기반하여 각각 '탐색용이성'과 '분류이해용이성'이라고 정했다. 스크리도표는 <그림 3>과 같고, 회전된 성분 행렬과 추출된 요인은 <표 4>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인 '탐색용이성'은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 이렇게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요인인 '분류이해용이성'은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개의 요인은 전체 7개 문항 분산의 80.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두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90와 .91로 충분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7개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그림 3>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표 4〉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의 두 가지 요인과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실제 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795	.364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746	.392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831	.319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	.845	.303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485	.738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331	.884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320	.880
요소명	탐색용이성	분류이해용이성
초기고유값	4.860	.762
분산 %	69.422	10.888
누적분산 %	69.422	80.310

적합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KMO 표본적합도 조사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KMO 표본적합도 측정치는 0.89, Bartlett Test의 검정통계량은 유의수준 0.01이내에서 $\chi^2 = 3369.41$ 로 나타나 7개의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보다 높은 도서탐색용이성을 보인 대형서점은, 공공도서관보다 탐색이 더 용이하고, 분류의 이해가 더 쉽고 할 수 있다.

분류표에서의 탐색용이도를 측정하는 7개 항목이 실제 도서탐색용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는 7개 측정항목이며, 종속변수는 '실제 도서탐색용이도'였다. 예측변수 선택방식은 예측변수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표준회귀방법을 사용하였다(이종성 외 2007). 한편,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

토해본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8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회귀식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text{도서탐색용이도} = 1.630 + 0.213(A) + 0.221(B) + 0.015(C) + 0.122(D) + 0.095(E) + 0.149(F) + 0.074(G)$$

- *A = 실제도서를 찾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 B =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기 쉬운 정도
- C = 찾는 의도에 잘 맞는 정도
- D = 분류항목에 유사한 도서들이 잘 모여 있는 정도
- E = 분류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 F = 분류항목명의 이해도
- G = 분류항목명의 친숙도

이 회귀식은 7개의 예측 변수의 변폭이 동일하므로, 계수를 통해 각각의 예측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볼 수 있다. 회귀식은 $F(7, 618) = 52.189, p < .001$ 로 유의했으며, 회귀분석에 대한 결정계수 R^2 은 0.372로, 위의 항목들을 통해 실제 도서탐색용이도 총 변량의 약 37.2%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개의 항목이 실제 도서탐색용이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항목 외에도 실제 도서탐색용이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분류 외에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앞서 실시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용자의 도서탐색에는 분류 외의 다른 요소들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공간구성은 이용자의 정보탐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Leckie and Given 2005), 도서의 가시성이나 진열 역시 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Woodward 2005). 또한, 표지판이나 공간의 평면도는 도서탐색에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이용자는 도서를 탐색할 때, 온라인 목록보다 물리적 공간의 안내판을 더 많이 본다고 밝혀진 바 있다(Sapiie 1995). 본 연구의 사전 조사 결과 검색시스템 역시 탐색을 편리하게 해 주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청구기호도 도서의 탐색을 편리하게 해 주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나 대형서점의 점원 같은 기관의 직원 역시 도서탐색을 편리하게 해 주는 요소였으며, 그 외에도 조명이나 분위기, 서가의 접근성 등

이 도서탐색에 영향을 주었다(Woodward 2005; Leckie and Given 2005).

4. 결론 및 제언

비영리 기관인 공공도서관은 이용될 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의 이용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헌분류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탐색을 쉽고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들은 대부분 관중에 관계없이 한국십진분류법을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도서관은 관중별로 서로 다른 목적과 서비스 대상,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도서이용목적과 요구 또한 다르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다른 관중 도서관과 달리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관심, 배경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서이용목적과 요구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는 이러한 특성에 맞는 분류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형서점을 하나의 모델로 하여, 이용자의 도서탐색행태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분석하고, 어떤 특징이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지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탐색에 편리한 분류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의 정보요구와 도서탐색방법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분류방식은 탐색을 편리하게 하거나, 탐색에 장애가 되어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이용자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 중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이 탐색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 넷째,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에 따른 탐색용이성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한 도서분류와 탐색빈도가 높은 영역의 용이한 접근성을 통해 이용자의 탐색행태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는 대형서점의 분류가 공공도서관의 분류보다 실제 도서를 탐색하는 분야를 찾기가 더 쉽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더 잘 나타내주며, 탐색의도에 더 잘 맞고, 분류항목 내에 유사한 도서들이 더 잘 모여 있으며, 분류표체계와 분류항목명의 이해가 더 쉽고, 분류항목

명도 더 친숙하다고 느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대형서점의 분류가 탐색이 더 용이하고, 분류의 이해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분류 외에 탐색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문헌분류 외에 도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공간구성, 가시성 및 진열, 안내판, 검색시스템, 청구기호 및 라벨, 직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을 조사하고, 분류방식과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탐색용이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편리한 도서탐색을 위한 고려사항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박철완. 2005.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49-165.
-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학회.
-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2. 『KDC의 이해』. 대구: 태일사.
- 윤희운. 2005.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사.
- 이종성, 강계남, 김양분, 강상진. 2007.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방법』. 서울: 박영사.
- 임종원, 박형진, 강명수. 2001. 『마케팅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정연경. 2001. 인터넷 서점의 주제별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17-34.
- 조경환. 1993. 『서울북맵: 서점 도서관 완벽가이드』. 서울: 진선출판사.
-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한국도서관협회. 1998.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06. 『한국서점편람』. 서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Agosto, D. 2006. "Book review".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4): 585-586.
- Baker, S. and G. Shepherd. 1998.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the principles

- behind them and their success.” *Reference Quarterly* 27(2): 245-251.
- Boter, J. and M. Wedel. 2005. “User categorization of public library collec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 190-202.
- Chernik, B. 1992. *Introduction to Library Services* Ea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Coffman, S. 1998. “What if you ran your library like a bookstore?” *American Libraries* 29(3): 40-44.
- Evans, E. and M. Saponaro. 200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Green, S. and N. Salkind. 2007. *Using SPSS for Windows and Macintosh*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Katz, A. 2002.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umes I* Boston, MA: McGraw Hill.
- Leckie, G. and J. Hopkins. 2002. “The public place of central libraries: findings from Toronto and Vancouver.” *Library Quarterly* 72(3): 326-372.
- Leckie, G. and L. Given. 2005. *Understanding Information Seeking: The Public Library Context*. Nitecki, A. and E. Abels (Eds.), *Advances in Librarianship* Amsterdam, NL: Elsevier.
- Lynch, S. and E. Mulero. “Dewey? at this Library with a very different outlook, they don’t.” *New York Times*, 14 July 2007.
- Raymond, J. 1998. “Librarians have little to fear from bookstores.” *Library Journal*, 123(15): 41-42.
- Sapiie, J. 1995. “Reader interest classification: the user friendly schem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4): 143-155.
- Sawbridge, L. and L. Favret. 1982. “The mechanics and the magic of declassificat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84(11): 385-386.
- Shimpock Vieweg, K. 1992. “How to develop a marketing plan for a law firm library.” *Law Library Journal*, 84: 67-91.
- Siess, J. 2003. *The visible librarian: asserting your value with marketing and advocac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hore, M. 2007. “Gilbert library to be first to drop Dewey Decimal.” *The Arizona Republic* 30.
- Smith, I. 1999. “What do we know about public library use?” *Aslib Proceedings*, 51(9): 302-314.
- Steffen, N. and K. Lance. 2002. “Who is doing what?: Outcome based evaluation and demographics in the counting on results project.” *Public Libraries*, 41(5): 271-279.
- Sykes, A. 1982. “Categorizat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84(11): 383-384.
- Vavrek, B. 2000. “Is the American public

library part of everyone's life?" *American Libraries* 31(1): 60-64.

Woodward, J. 2005. *Creating the Customer*

driven Library: Building on the bookstore model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